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2월 25일

HANA Global Weekly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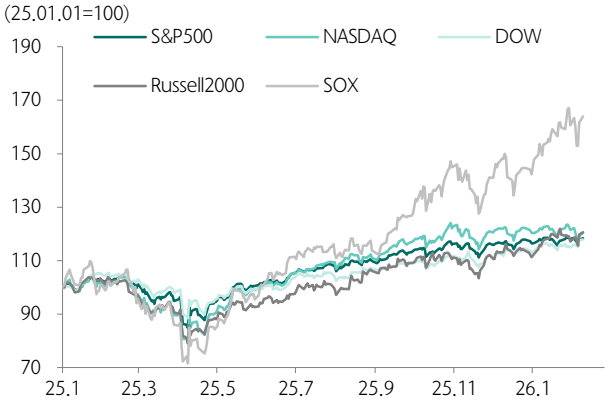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과 이란발 변수, 소프트웨어 종말론 및 사모신용 우려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권 마감
- 미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 판결내림.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15%의 관세를 최대 부과 가능 기간인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힘. 그 외에도 무역법 201·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힘

종가 기준일: 2026.02.23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6,837.8	(1.0)	0.0	(1.1)	(0.1)
	NASDAQ	22,627.3	(1.1)	0.4	(3.7)	(2.6)
	DOW	48,804.1	(1.7)	(1.4)	(0.6)	1.5
	Russell2000	2,621.0	(1.6)	(1.0)	(1.8)	5.6
	SOX	8,213.5	(0.6)	0.9	3.2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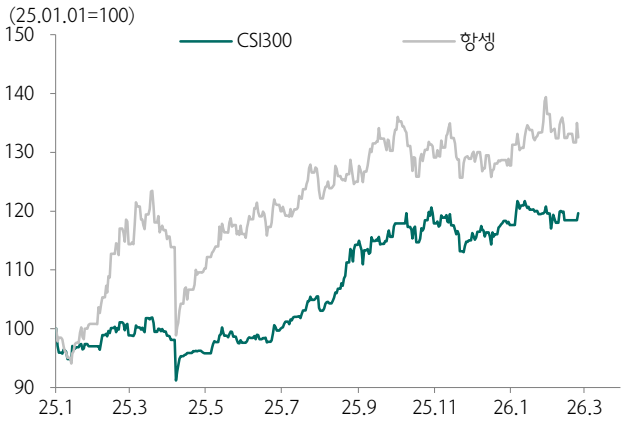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춘절 장기 연휴 이후 개장한 중국 본토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 거래대금은 2.22조 위안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했으며, 기관의 매수세 대거 유입
- 춘절 연휴 기간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홍콩 증시와 FTSE A50 지수의 완만한 상승세도 A주 개장에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 중국 내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산업 정책이 시장 심리를 개선. 역내 위안화(CNY) 환율도 달러 대비 6.89 위안선 돌파하며 2023년 5월 초 이후 최고치 기록, 하루 만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평가 절상 유지

종가 기준일 : 2026.02.24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707.5	1.0	1.0	0.1	19.6
	항셍	26,590.3	(1.8)	(0.4)	(0.6)	32.6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MWC 2026	3/2~3	09:00	★★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주제는 지능형 인프라
중국 양회(정협)	3/4	09:00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 결정
연준 베이지북 공개	3/5	03:00	★★	FOMC 직전 경기 체감과 인플레이션 확인 가능
중국 양회(전인대)	3/5	09:00	★★	전인대에서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 목표 제시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QDF (FlexShares Quality Dividend Index Fund)	XLE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투자 유망 종목

엔비디아 (NVDA.US)	알파벳 (GOOGL.US)	일라이 릴리 (LLY.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캐터필러 (CAT.US)
팔란티어 (PLTR.US)	RTX (RTX.US)	블룸 에너지 (BE.US)	바이두 (9888.HK)	동방전기 (600875.CH)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엔비디아	NVDA	2월 25일 장후	FY26 4분기 매출 655.8억, EPS 1.52 달러
로켓랩	RKLB	2월 26일 장후	FY25 4분기 매출 1.78억, EPS 0.98 달러
델 테크노롤로지스	DELL	2월 26일 장후	FY26 4분기 매출 315.7억, EPS 3.53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미국 이슈 코멘트	무역 및 건설 지표로 보는 미국 AI 인프라
미국 에너지	원자력 업데이트 #1: 우라늄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0.4	0.9	6.5	20.2	3.1	0.0	0.1	0.3	0.8	0.2	18.8	18.7	19.0	18.7	18.5	19.7	14.9	3.2	3.2	3.2	3.1	3.0	3.3	2.2	
에너지	2.7	10.8	20.0	25.4	18.8	0.0	0.1	-0.1	-0.8	-0.1	17.1	16.7	15.7	13.9	12.0	17.2	7.8	1.9	1.9	1.7	1.6	1.6	1.9	1.3	
소재	3.2	5.5	27.1	42.5	17.2	0.0	0.2	0.7	1.4	0.6	17.2	16.9	17.1	15.7	16.0	17.4	12.4	2.4	2.4	2.3	2.0	1.8	2.4	1.6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 금융
산업재	0.7	6.0	18.3	35.1	12.7	0.0	0.1	0.2	0.4	0.1	24.4	24.1	23.2	21.2	19.9	24.4	15.8	4.1	4.1	4.0	3.6	3.3	4.1	2.5	
자유소비재	-0.3	-5.6	-0.4	3.8	-3.7	0.0	0.0	0.1	0.2	0.1	20.9	20.7	21.9	21.2	20.5	22.9	16.2	3.4	3.4	3.6	3.5	3.6	3.8	2.8	
필수소비재	0.8	8.2	13.3	13.1	12.2	-0.0	0.1	0.1	0.3	0.1	20.7	20.7	19.7	19.0	19.7	21.1	17.1	4.5	4.5	4.2	4.0	4.1	4.5	3.5	
건강관리	0.0	1.0	3.8	9.4	3.2	0.0	0.0	0.0	0.2	0.0	18.7	18.8	18.8	18.2	17.8	20.2	15.7	4.1	4.1	4.1	4.0	4.0	4.4	3.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에너지
금융	-0.6	-0.0	6.4	17.8	-0.5	0.0	0.1	0.4	1.2	0.2	13.1	13.0	13.2	12.7	13.0	13.7	9.2	1.7	1.7	1.7	1.7	1.6	1.8	1.1	
정보기술	0.2	-1.6	2.3	24.9	-0.7	0.0	0.3	0.7	1.6	0.5	21.8	21.7	23.2	25.0	26.4	29.6	20.0	7.2	7.1	7.6	7.7	7.1	8.5	5.0	
커뮤니케이션	1.2	-2.9	-1.7	21.6	-1.9	0.0	0.1	0.3	0.9	0.2	19.6	19.4	20.3	20.8	19.6	21.1	15.0	3.7	3.6	3.8	3.9	3.6	4.0	2.1	
유틸리티	0.4	8.5	8.8	27.5	10.1	0.0	0.1	0.2	0.6	0.1	17.0	17.1	16.0	16.3	14.9	17.1	12.5	1.9	1.9	1.8	1.8	1.7	1.9	1.4	
미국	0.0	-1.2	2.1	14.8	-0.1	0.0	0.1	0.2	0.7	0.1	21.5	21.3	21.8	21.8	21.6	22.9	17.0	4.5	4.5	4.6	4.5	4.4	4.7	3.3	
에너지	1.1	11.2	23.4	25.1	21.8	-0.0	0.0	-0.2	-0.7	-0.2	20.6	20.2	18.9	16.1	14.4	20.8	9.2	2.4	2.3	2.2	2.0	2.0	2.4	1.7	
소재	1.8	5.8	26.8	39.3	18.8	0.0	0.2	0.5	1.3	0.3	20.3	19.9	20.2	18.1	19.9	21.4	15.4	3.2	3.1	3.0	2.6	2.4	3.2	2.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소재, 산업재
산업재	0.4	5.9	16.2	28.6	12.4	0.0	0.0	0.1	0.3	0.1	27.5	27.2	25.8	23.9	22.9	27.5	17.7	6.6	6.6	6.3	5.8	5.5	6.6	4.1	
자유소비재	-0.6	-8.3	-1.5	4.1	-5.7	0.0	0.0	0.1	0.4	0.1	25.2	24.9	26.9	25.6	26.4	30.1	21.0	6.7	6.6	7.3	7.0	7.8	8.8	6.2	
필수소비재	-0.7	7.5	15.9	10.0	14.5	-0.0	0.0	0.0	0.1	0.0	23.4	23.6	22.2	20.7	22.1	24.0	17.5	6.4	6.5	6.1	5.5	6.0	6.6	4.7	
건강관리	0.6	0.4	1.1	7.2	1.6	0.0	0.1	-0.0	0.0	0.0	18.9	19.0	19.3	18.8	18.0	20.2	15.8	4.6	4.6	4.6	4.6	4.5	4.9	3.8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1.8	-4.2	-1.0	3.7	-6.9	0.0	0.1	0.3	0.9	0.2	15.1	15.0	15.4	15.4	16.1	17.0	10.6	2.1	2.1	2.2	2.1	2.2	2.3	1.3	
정보기술	0.2	-3.7	-4.0	17.9	-5.3	0.0	0.1	0.4	1.2	0.2	24.1	24.0	25.1	27.3	28.4	32.3	21.5	9.2	9.1	9.8	10.4	9.7	11.5	7.0	
커뮤니케이션	0.9	-3.4	-1.2	24.6	-2.0	0.0	0.1	0.2	0.9	0.2	20.7	20.2	21.4	21.7	19.8	22.2	14.4	4.4	4.3	4.6	4.6	4.3	4.8	2.4	
유틸리티	0.2	8.9	4.7	17.0	8.7	0.0	0.1	0.1	0.4	0.1	19.3	19.4	18.0	18.9	17.8	20.0	14.1	2.2	2.2	2.1	2.2	2.1	2.3	1.5	
일본	0.3	4.6	15.1	38.2	11.5	0.1	0.1	0.4	0.7	0.3	18.3	18.4	18.0	17.0	15.2	19.0	12.3	1.8	1.8	1.7	1.6	1.4	1.8	1.1	
에너지	3.9	14.2	28.7	72.8	24.2	0.2	0.2	1.2	1.5	0.2	12.9	12.8	11.6	11.8	9.2	13.9	6.2	1.0	1.0	0.9	0.8	0.6	1.0	0.5	
소재	2.0	7.1	28.7	34.2	20.1	0.0	0.2	-0.1	0.2	0.3	17.6	17.1	17.0	13.4	13.5	17.8	10.4	1.3	1.3	1.3	1.0	1.0	1.4	0.8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재	0.4	6.8	23.1	56.7	15.8	0.0	0.1	0.2	0.3	0.2	21.2	20.9	20.2	17.9	14.5	22.1	11.1	2.1	2.1	2.0	1.8	1.4	2.2	1.2	
자유소비재	-0.7	2.7	5.2	20.1	4.4	-0.0	0.1	0.4	0.0	0.1	16.7	16.8	16.6	17.0	14.0	18.1	10.1	1.5	1.5	1.4	1.4	1.3	1.5	1.0	
필수소비재	-1.0	6.3	0.8	22.7	5.6	0.0	-0.0	0.0	0.3	-0.1	22.5	22.9	21.2	22.6	19.6	23.0	18.2	2.2	2.3	2.1	2.1	1.7	2.3	1.6	
건강관리	2.0	5.6	8.9	21.3	9.0	0.0	-0.1	0.1	0.4	0.1	19.7	19.2	18.2	18.3	17.4	23.4	15.2	2.4	2.4	2.4	2.3	2.0	2.6	1.8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소재
금융	1.0	7.5	28.1	49.7	18.4	0.0	0.2	0.4	1.8	0.2	13.5	13.2	12.8	11.1	12.0	14.2	8.5	1.3	1.3	1.2	1.1	1.0	1.3	0.6	
정보기술	0.6	0.5	17.4	41.3	12.5	0.0	0.5	0.8	0.9	0.6	24.8	24.9	28.1	26.1	22.3	28.4	16.5	3.4	3.4	3.5	3.1	2.5	3.6	1.8	
커뮤니케이션	-3.3	-6.0	-12.8	10.4	-7.2	0.8	-0.1	0.8	1.6	0.8	19.0	22.9	19.7	25.6	25.0	28.4	13.2	2.2	2.3	2.2	3.0	1.9	3.4	1.5	
유틸리티	-0.7	10.1	15.2	65.4	14.0	0.2	0.4	-0.1	-1.8	0.5	14.6	15.2	14.1	12.4	7.0	16.0	5.0	1.0	1.0	0.9	0.9	0.6	1.0	0.5	
유럽	1.1	3.3	11.4	12.9	6.1	0.0	0.1	0.1	0.2	0.1	16.2	15.9	15.7	14.8	14.7	16.2	11.6	2.3	2.3	2.2	2.1	2.0	2.3	1.6	
에너지	3.5	10.5	12.4	12.5	13.0	0.1	0.0	-0.3	-2.1	-0.2	12.5	12.3	11.4	10.8	8.9	12.6	5.9	1.4	1.4	1.2	1.4	1.1	1.6	1.0	
소재	2.6	4.7	18.6	14.3	11.0	0.0	0.1	0.5	0.1	0.3	17.5	17.1	17.1	16.3	15.5	17.7	11.6	2.0	1.9	1.9	1.7	1.6	2.0	1.4	
산업재	1.1	3.3	16.0	22.8	9.4	0.0	0.0	0.1	0.2	0.1	23.8	23.4	23.0	20.7	20.3	23.9	15.1	4.1	4.0	4.0	3.5	3.5	4.1	2.6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금융, 정보기술
자유소비재	1.3	-1.3	-3.5	-14.5	-6.7	-0.0	-0.1	-0.0	-1.1	-0.1	15.7	15.4	15.5	16.2	15.6	17.2	10.9	1.7	1.6	1.7	1.7	1.9	1.9	1.5	
필수소비재	2.1	10.8	9.6	7.9	9.5	-0.0	0.0	0.1	-0.0	0.0	17.0	16.6	15.4	15.7	15.7	18.8	14.6	3.2	3.1	2.8	2.9	2.9	3.2	2.6	
건강관리	-2.3	1.6	9.1	2.6	6.2	-0.0	-0.0	-0.0	-0.1	-0.0	17.4	17.6	16.8	15.6	16.6	18.9	13.1	3.6	3.6	3.4	3.3	3.5	4.0	2.8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1.7	0.9	11.2	25.6	0.9	0.0	0.2	0.3	1.1	0.3	11.2	11.1	11.3	10.4	10.2	11.6	7.7	1.5	1.5	1.5	1.4	1.3	1.6	0.8	
정보기술	2.7	-0.3	17.6	11.6	12.5	0.0	0.2	0.2	0.3	0.3	30.2	29.3	31.6	26.9	29.4	32.0	18.9	5.8	5.6	5.5	4.9	5.1	5.8	3.5	
커뮤니케이션	0.5	7.8	6.9	-4.3	5.6	0.0	0.1	0.2	0.2	0.1	16.8	16.7	15.7	16.3	18.1	19.7	12.6	2.2	2.1	2.0	1.9	2.1	2.2	1.2	
유틸리티	-0.0	8.5	15.2	41.3	12.6	0.0	0.0	0.2	0.6	0.1	15.4	15.6	14.5	13.9	12.2	15.6	11.1	1.8	1.8	1.7	1.6	1.5	1.8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1.7	5.4	17.9	39.4	12.7	0.0	0.5	1.1	1.8	0.9	12.9	12.9	13.3	13.0	12.4	14.0	10.9	2.0	2.0	2.0	1.8	1.6	2.0	1.3	
에너지	2.3	7.5	8.5	22.0	9.1	0.0	0.4	0.3	-1.1	0.4	11.3	11.2	11.1	10.9	8.3	11.5	6.2	1.3	1.3	1.2	1.2	1.0	1.3	0.6	
소재	4.1	2.8	28.9	75.3	16.9	0.0	0.2	1.3	2.5	1.2	13.3	13.1	13.7	12.8	11.7	14.5	9.8	2.0	2.0	2.0	1.6	1.2	2.2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에너지, 자유소비재
산업재	3.1	8.9	21.7	51.5	16.7	0.0	0.3	0.5	0.6	0.4	17.4	17.0	17.0	15.6	12.9	17.5	10.8	2.3	2.3	2.2	2.0	1.5	2.3	0.7	
자유소비재	0.7	-2.3	1.7	4.0	2.7	0.0	0.1	-0.0	-0.5	0.1	14.4	14.7	15.2	14.4	13.2	16.1	10.8	1.9	1.9	2.0	2.0	2.0	2.2	1.5	
필수소비재	-0.1	3.7	4.3	9.1	4.9	0.0	0.5	0.6	0.6	0.6	17.6	17.7	18.7	19.0	18.2	21.1	17.5	3.2	3.2	3.1	3.1	2.8	3.2	2.6	
건강관리	1.8	4.5	3.9	18.3	8.8	0.0	0.1	0.1	0.1	0.2	28.0	27.9	28.0	27.9	24.6	30.3	22.7	3.8	3.7	3.7	3.7	2.9	3.9	2.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소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금융	1.5	6.3	12.2	30.5	9.0	0.0	0.2	0.4	1.3	0.3	9.8	9.8	9.5	9.2	8.7	9.9	7.0	1.2	1.2	1.2	1.1	1.1	1.2	0.9	
정보기술	2.0	10.9	42.9	83.0	25.5	0.2	1.3	2.8	4.2	2.3	13.1	13.3	14.4	14.5	16.1	19.1	11.8	3.7	3.7	3.8	3.1	2.8	3.8	1.9	
커뮤니케이션	0.1	-5.8	-6.4	14.2	-4.1	0.0	0.1	0.3	1.3	0.2	15.2	15.6	16.7	17.5	17.0	19.5	13.8	2.4	2.4	2.6	2.7	2.7	3.0	1.6	
유틸리티	1.3	5.6	8.3	22.9	9.5	0.0	0.1	0.3	0.8	0.1	12.0	11.9	11.5	11.5	10.8	13.6	9.8	1.4	1.3	1.3	1.3	1.2	1.4	1.0	
중국	0.9	-1.9	1.0	12.8	2.1	0.0	0.2	0.3	0.5	0.2	11.9	11.9	12.4	12.3	11.3	13.6	8.0	1.4	1.4	1.5	1.4	1.4	1.6	0.9	
에너지	1.8	10.9	15.4	44.1	16.6	0.0	0.1	0.4	-1.0	0.2	11.4	11.3	10.5	10.4	7.2	11.6	5.6	1.0	1.0	0.9	0.9	0.7	1.1	0.7	
소재	2.3	2.6	37.1	139.1	18.8	0.0	0.4	0.9	2.3	0.8	14.5	14.7	15.5	12.7	9.5	16.8	8.1	2.3	2.4	2.4	1.8	1.2	2.6	0.9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건강관리, 자유소비재
산업재	0.6	4.8	12.1	25.4	8.5	0.0	0.1	0.1	-1.0	0.3	12.3	12.3	12.0	11.1	8.8	12.5	6.8	1.2	1.2	1.2	1.1	0.9	1.2	0.7	
자유소비재	0.4	-5.0	-2.2	-5.4	1.0	0.0	0.1	-0.1	-0.8	0.1	14.2	14.6	15.6	14.7	13.9	18.0	10.0	1.9	2.0	2.1	2.1	2.3	2.5	1.5	
필수소비재	-0.6	2.1	-1.0	6.5	4.6	0.0	0.1	0.3	0.2	0.1	16.3	16.6	16.4	17.4	15.9	22.1	12.8	2.8	2.8	2.8	3.0	2.7	4.2	2.3	
건강관리	2.8	2.5	4.0	44.2	13.6	0.0	0.2	0.2	0.7	0.3	26.7	26.5	28.0	27.5	23.2	32.1	19.0	3.3	3.3	3.4	3.1	2.3	3.6	1.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필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2.1	6.1	5.5	25.0	5.1	0.0	0.3	0.8	2.0	0.4	6.0	6.0	5.9	6.2	5.6	6.5	3.6	0.6	0.6	0.6	0.6	0.6	0.6	0.4	
정보기술	-0.1	-2.1	6.6	-5.0	0.8	0.0	0.1	0.2	0.7	0.2	22.3	22.9	23.7	22.5	28.4	30.2	12.6	2.7	2.8	3.1	2.9	3.5	4.0	1.3	
커뮤니케이션	0.2	-10.5	-11.5	10.7	-8.7	0.0	0.1	0.4	1.4	0.2	14.0	14.4	16.4	17.3	16.2	20.9	11.3	2.2	2.3	2.6	2.8	2.8	3.2	1.3	
유틸리티	1.0	1.7	0.5	10.1	3.6	0.0	-0.0	-0.0	-0.8	-0.1	10.0	10.0	9.9	10.0	8.4	10.4	6.5	1.0	1.0	1.0	1.0	0.9	1.1	0.7	
인도	-0.3	2.9	-0.4	14.5	-1.5	0.0	0.2	0.2	0.6	0.2	20.9	21.0	21.0	22.1	20.8	24.5	18.4	3.2	3.2	3.1	3.3	3.2	4.0	2.8	
에너지	0.4	4.4	-3.1	20.0	-5.5	0.0	0.1	0.1	0.6	0.1	14.5	14.4	14.0	15.2	13.2	24.8	12.6	1.7	1.7	1.6	1.8	1.5	2.9	1.4	
소재	0.2	2.1	9.0	24.7	3.3	0.0	0.1	0.5	1.3	0.4	18.9	18.9	19.1	19.0	20.4	22.6	15.4	2.8	2.8	2.9	2.7	2.7	3.1	2.1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산업재	0.5	13.2	6.5	32.4	5.9	0.0	0.0	-0.0	0.3	0.1	34.8	34.7	31.1	32.4	29.9	42.0	25.4	6.9	6.9	6.2	6.5	6.1	8.8	3.9	
자유소비재	-1.0	4.4	-2.1	18.9	-2.6	0.0	-0.0	-0.0	0.0	0.0	32.3	32.7	30.9	32.9	27.2	35.0	24.2	5.2	5.3	4.9	5.3	4.5	7.0	3.7	
필수소비재	0.8	-0.2	-1.8	5.2	-3.1	-0.0	1.9	1.9	2.3	1.9	23.5	23.2	43.3	43.8	48.2	56.6	23.0	9.7	9.6	9.8	9.9	8.8	12.1	8.2	
건강관리	0.6	5.8	-0.6	9.2	1.1	0.0	0.0	-0.1	-0.4	-0.0	30.9	30.8	29.3	30.5	24.9	34.2	22.2	4.6	4.5	4.3	4.6	4.5	5.5	3.3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에너지, 건강관리
금융	0.2	4.5	1.4	20.5	0.7	0.0	0.0	0.1	0.5	0.1	17.1	17.0	16.4	17.2	15.4	21.8	14.9	2.4	2.4	2.3	2.5	2.4	3.3	2.2	
정보기술	-4.3	-17.4	-14.1	-21.9	-16.4	0.0	0.1	0.2	0.5	0.2	18.7	19.6	22.9	22.8	26.6	31.6	18.7	5.5	5.8	6.7	6.1	7.8	9.7	5.5	
커뮤니케이션	-1.3	1.1	-5.7	21.9	-4.5	0.0	0.2	0.3	1.7	0.2	35.7	36.4	37.8	42.3	73.1	82.9	27.6	8.5	8.6	8.2	9.0	13.0	19.3	3.8	
유틸리티	0.9	11.8	7.2	14.8	8.4	0.0	-0.1	0.0	0.3	-0.0	16.5	16.4	14.6	15.4	15.2	21.9	11.4	2.1	2.1	1.8	1.9	2.1	3.1	1.5	
브라질	0.1	6.1	22.0	53.0	21.4	0.1	0.5	0.7	0.5	0.8	10.8	10.6	10.6	9.5	7.4	11.0	6.4	1.8	1.7	1.7	1.5	1.2	1.8	0.7	
에너지	6.2	13.2	27.7	18.3	35.0	0.3	1.9	0.9	-3.9	1.9	6.8	6.7	7.1	5.8	4.6	7.5	3.3	1.1	1.0	1.0	0.8	0.8	4.6	0.2	
소재	1.6	5.2	36.5	55.7	25.9	0.1	0.3	0.7	0.3	1.1	8.7	8.8	8.6	6.9	5.8	9.0	5.0	1.5	1.5	1.3	1.0	0.9	1.7	0.8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0.9	4.4	22.2	41.0	16.3	0.0	0.2	0.4	0.9	0.4	19.9	19.9	19.8	17.6	17.2	26.1	15.4	3.0	2.5	3.0	2.5	2.1	3.7	1.4	
자유소비재	-0.8	11.1	29.8	104.9	31.4	-0.1	0.3	0.9	1.8	0.8	13.2	12.7	12.0	11.2	8.1	17.0	6.6	1.7	1.7	1.5	1.3	0.8	1.9	0.8	
필수소비재	1.3	7.6	17.7	46.3	18.2	0.1	0.1	0.5	-0.0	0.4	16.1	16.2	15.3	14.9	11.1	18.5	10.7	2.7	2.7	2.5	2.7	1.8	2.8	1.7	
건강관리	3.8	1.6	0.3	71.5	14.0	0.0	0.1	0.2	0.9	0.2	18.4	17.4	17.8	18.5	12.3	28.1	10.8	3.8	3.6	3.6	3.2	0.8	3.8	0.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정보기술, 건강관리
금융	1.0	3.5	18.2	64.9	17.5	0.1	0.3	0.7	1.8	0.7	11.1	10.7	10.7	9.8	8.0	11.2	6.2	2.3	2.2	2.2	2.0	1.6	2.3	1.1	
정보기술	2.4	-15.9	-6.1	24.1	-3.2	-0.0	-0.0	0.1	1.3	0.2	21.7	20.7	25.0	23.0	23.4	26.6	18.7	4.0	3.9	4.8	4.4	4.2	5.0	2.3	
커뮤니케이션	3.4	15.7	22.2	80.2	35.8	0.1	0.3	0.4	1.8	0.6	14.9	15.1	14.0	13.6	11.9	15.6	10.4	2.3	2.3	2.1	1.9	1.4	2.4	1.0	
유틸리티	3.6	8.7	19.4	78.8	20.0	0.0	0.3	1.1	2.0	0.6	13.9	13.5	13.3	13.7	10.7	14.5	8.6	1.5	1.5	1.4	1.4	1.1	1.5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0.2	0.3	5.2	18.0	2.0	0.0	0.1	0.2	0.7	0.1	20.0	19.9	20.1	19.8	19.5	20.7	15.5	3.5	3.5	3.5	3.4	3.3	3.5	2.5	
대형주	0.2	-0.0	4.4	18.0	1.3	0.0	0.1	0.2	0.7	0.1	20.5	20.3	20.6	20.4	20.0	21.4	15.7	3.8	3.8	3.8	3.8	3.6	3.9	2.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성장
중형주	0.3	1.8	9.4	18.1	5.6	0.0	0.1	0.2	0.7	0.2	17.8	17.6	17.7	16.8	17.0	17.9	13.9	2.4	2.4	2.4	2.2	2.1	2.4	1.7	
소형주	0.1	1.4	13.0	26.5	8.3	0.0	0.2	0.5	0.9	0.3	17.6	17.4	17.8	16.9	16.5	18.0	13.2	1.8	1.7	1.7	1.7	1.5	1.8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소형주
성장	0.2	-2.8	-0.5	15.8	-2.5	0.0	0.1	0.1	0.7	0.2	25.9	25.7	27.0	26.6	27.4	28.8	21.9	6.5	6.4	6.8	6.9	6.8	7.2	4.8	
가치	0.2	3.2	10.7	19.4	6.3	0.0	0.1	0.1	0.5	0.1	16.6	16.5	16.2	15.3	15.0	16.7	11.7	2.5	2.5	2.4	2.2	2.1	2.5	1.6	
미국	0.0	-1.2	2.1	14.8	-0.1	0.0	0.1	0.2	0.7	0.1	21.5	21.3	21.8	21.8	21.6	22.9	17.0	4.5	4.5	4.6	4.5	4.4	4.7	3.3	
대형주	-0.0	-1.3	1.5	15.3	-0.6	0.0	0.1	0.2	0.7	0.1	21.9	21.8	22.3	22.4	22.1	23.6	17.3	4.9	4.9	5.0	5.0	4.8	5.2	3.5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중형주	-0.2	-0.4	6.2	11.1	3.2	0.0	0.1	0.2	0.6	0.1	19.0	18.8	19.1	18.3	18.8	20.1	14.9	3.0	2.9	3.0	2.8	2.8	3.0	2.2	
소형주	-0.2	0.2	11.8	22.8	7.9	-0.0	0.2	0.5	1.0	0.3	18.9	18.7	19.3	18.4	18.6	21.1	14.8	2.1	2.1	2.1	2.0	1.7	2.1	1.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소형주
성장	0.0	-4.4	-4.2	14.9	-5.3	0.0	0.1	0.1	0.7	0.1	27.3	27.1	28.9	28.8	29.3	31.5	23.0	9.0	8.9	9.8	9.6	9.3	10.4	6.0	
가치	-0.1	1.9	8.4	13.2	5.0	0.0	0.0	0.1	0.3	0.1	18.1	18.0	17.7	16.8	16.8	18.2	13.1	3.1	3.1	3.1	2.8	2.8	3.1	2.1	
일본	0.3	4.6	15.1	38.2	11.5	0.1	0.1	0.4	0.7	0.3	18.3	18.4	18.0	17.0	15.2	19.0	12.3	1.8	1.8	1.7	1.6	1.4	1.8	1.1	
대형주	-0.2	3.2	14.1	37.9	10.1	0.1	0.1	0.3	0.7	0.3	18.7	18.9	18.5	17.4	15.6	19.6	12.3	1.9	1.9	1.9	1.8	1.5	2.0	1.2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대형주
중형주	1.6	8.5	17.7	38.8	15.2	0.0	0.2	0.4	0.6	0.3	17.3	17.1	16.6	15.9	14.0	17.7	11.4	1.6	1.6	1.5	1.4	1.1	1.6	1.0	
소형주	1.0	8.9	19.1	39.3	14.9	0.0	0.2	0.4	0.7	0.2	16.8	16.6	15.9	15.0	13.6	17.1	11.6	1.4	1.4	1.3	1.2	1.1	1.4	0.9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1.4	2.5	9.7	29.0	8.6	0.1	0.2	0.1	0.4	0.3	24.7	24.8	25.0	23.2	21.2	25.6	16.4	3.0	2.9	2.9	2.9	2.4	3.1	1.9	
가치	0.8	6.6	20.3	47.3	14.2	0.1	0.1	0.5	1.1	0.2	14.9	15.0	14.3	13.4	12.1	15.6	9.6	1.3	1.3	1.3	1.1	1.0	1.4	0.8	
유럽	1.1	3.3	11.4	12.9	6.1	0.0	0.1	0.1	0.2	0.1	16.2	15.9	15.7	14.8	14.7	16.2	11.6	2.3	2.3	2.2	2.1	2.0	2.3	1.6	
대형주	1.1	3.2	11.3	11.8	6.0	0.0	0.1	0.1	0.1	0.1	16.4	16.2	15.9	14.9	14.8	16.4	11.6	2.4	2.3	2.3	2.1	2.1	2.4	1.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가치
중형주	1.1	3.9	11.6	18.5	6.4	0.0	0.1	0.2	0.6	0.1	15.2	15.0	14.7	14.0	14.0	15.2	12.1	2.0	1.9	1.9	1.7	1.6	2.0	1.4	
소형주	-0.2	0.8	12.5	26.8	4.8	0.0	0.1	0.3	0.9	0.2	14.5	14.3	14.4	13.3	12.9	14.7	10.5	1.5	1.5	1.5	1.4	1.3	1.6	0.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0.6	0.8	9.9	4.2	5.1	0.0	0.0	0.1	0.3	0.1	22.4	22.0	22.2	20.5	22.8	25.1	18.8	3.9	3.9	3.9	3.7	4.2	4.4	3.4	
가치	1.5	5.8	12.8	22.0	6.9	0.0	0.1	0.2	0.3	0.1	12.8	12.7	12.3	11.6	10.9	12.8	8.6	1.7	1.6	1.6	1.5	1.4	1.7	1.1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15,331.61	13,018.75	12,800.73	13,812.49	0.21	0.19	7,142,687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8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3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5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10,557.80	11,072.78	16,329.83	20,579.62	0.07	0.07	15,251,843	
		W.Europe	2,989.04	2,006.28	3,371.52	2,491.32	0.14	0.10	2,109,347	
		Asia Pacific	2,678.39	1,078.52	1,908.49	828.61	0.21	0.09	1,283,429	
		선진국 합	31,556.83	27,176.33	34,410.56	37,712.05	0.12	0.11	25,787,306	
	신흥국	GEM	4,312.54	5,251.28	3,035.05	4,544.38	0.34	0.45	1,271,990	
		Asia ex-JP	(1,857.06)	(7,076.06)	(1,631.70)	(6,704.37)	(0.13)	(0.47)	1,421,605	
		EMEA	381.13	227.94	196.97	170.22	0.76	0.48	50,532	
		LatAm	799.91	535.75	687.29	467.19	1.30	0.99	61,254	
		신흥국 합	3,636.52	(1,061.09)	2,287.60	(1,522.58)	0.13	(0.03)	2,805,380	
채권	선진국	Global	3,448.38	2,010.61	1,549.37	1,456.93	0.26	0.16	1,302,188	
		NorthAm	15,224.79	13,950.37	12,843.35	11,656.90	0.28	0.26	5,484,261	
		W.Europe	4,266.11	2,033.17	3,083.20	1,198.39	0.21	0.10	1,990,481	
		Asia Pacific	4.89	(32.27)	222.76	113.57	0.01	(0.04)	72,402	
		선진국 합	22,944.18	17,961.88	17,698.69	14,425.79	0.26	0.21	8,849,332	
	신흥국	GEM	2,668.70	1,582.60	839.10	479.25	0.69	0.43	387,629	
		Asia ex-JP	597.54	(9.79)	577.73	133.22	0.24	0.02	249,266	
		EMEA	162.78	56.46	60.48	19.15	0.37	0.13	44,312	
		LatAm	60.07	182.12	73.14	160.80	0.44	1.49	13,829	
		신흥국 합	3,489.09	1,811.39	1,550.45	792.42	0.50	0.27	695,037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

- 특히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과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291.3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형 ETF 시장 전반(신흥아시아 지역만 제외하고)에 걸친 +367.0억달러의 매수세 유입이 확인
-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에도 선진·신흥국 시장 전반에 걸친 고른 자금 유입 흐름이 진행되면서 총 +192.5억달러가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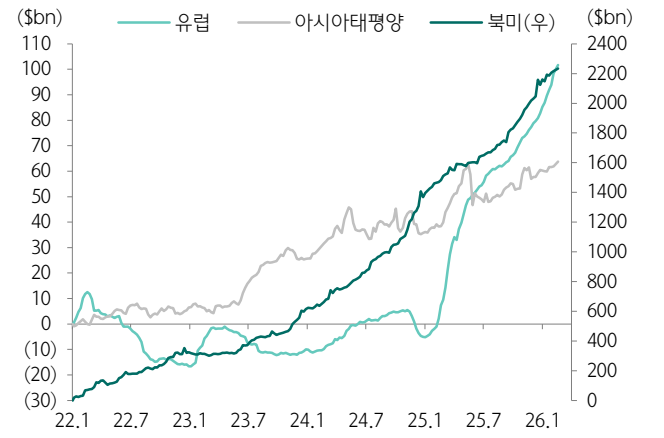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유입강도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MM)	(%)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12,801	16,095	16,948	9,600	2,660,799	0.48
		북미	16,330	12,324	19,244	(7,614)	9,995,036	0.16
		서유럽	3,372	4,467	2,064	2,185	628,702	0.54
		아시아 태평양	1,908	260	61	1,681	960,476	0.20
	선진시장 Total		34,411	33,147	38,317	5,853	14,245,013	0.25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3,035	4,171	9,243	6,323	624,243	0.49
		신흥아시아	(1,632)	2,186	(55,625)	(47,207)	1,078,562	(0.15)
		EMEA	197	342	258	85	17,425	1.14
		남미	687	162	1,772	438	47,580	1.44
	신흥시장 Total		2,288	6,861	(44,351)	(40,362)	1,767,809	0.13
	주식 ETF Total		36,698	40,008	(6,034)	(34,509)	16,012,823	0.24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1,549	1,185	1,456	1,265	205,434	0.76
		북미	12,843	9,429	14,023	10,270	2,610,657	0.50
		서유럽	3,083	1,444	1,345	679	327,568	0.94
		아시아 태평양	223	213	162	74	21,599	1.04
	선진시장 Total		17,699	12,272	16,985	12,289	3,165,259	0.57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839	242	1,066	1,030	79,609	1.07
		신흥아시아	578	(2,359)	(2,787)	(2,082)	137,741	0.42
		EMEA	60	30	10	20	1,548	4.09
		남미	73	268	118	74	4,657	1.60
	신흥시장 Total		1,550	(1,820)	(1,593)	(958)	223,555	0.71
	채권 ETF Total		19,249	10,452	15,393	11,331	3,388,814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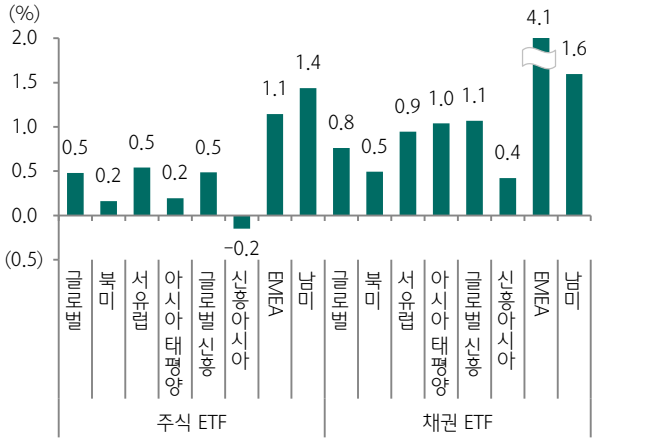
주1. 기준일: 26.02.18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관세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내부 노이즈에서 제한. Nvidia 주도의 반전 시도. SMH, PAVE, MADE 등 활용

-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등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15% 관세 도입과 무역법 검토 예고 등의 방법들로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 변칙적인 캐릭터를 인지하고 있는 글로벌 각국 정부들은 재협상 요구에 관망 및 소극적 스탠스 견지
- Nvidia는 수요일(2/25) 미국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 시장은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의 이익률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수요의 지속성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집중할 전망.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Rubin)에 대한 로드맵과 비용 인식 부분에 의한 실적 영향도 살펴보게 되겠으나, 앞서 실적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Hyperscalers 기업들의 Capex 확대 전망과 수요 연결 내용은 경계심이 높아진 시장 분위기의 반전 시도 기대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CHAT와 SMH, ZAP, URA/NLR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과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Q/BOTZ와 ARKX, 현대화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방향 고려한 고려한 SHLD/KDEF와 XLE,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과 관세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PAVE/MADE/XLI,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GDX/QDF/QGRO 중심 대응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QDF (FlexShares Quality Dividend Index Fund)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2026년 2월 2일	82.93 83.61	0.82% 1.10%
주식형	XLE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미국 에너지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2026년 1월 2일	45.65 54.88	20.22% 17.62%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2025년 11월 24일	339.12 415.03	22.38% 14.26%
주식형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미국 제조업 기업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2025년 10월 27일	30.66 36.81	20.06% 14.82%
주식형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미국 인프라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2025년 11월 24일	46.98 55.64	18.43% 10.31%
주식형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미국 방산 기술 주식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2025년 4월 25일	50.62 75.46	49.07% 15.35%
주식형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미국 퀄리티 성장 주식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2024년 1월 5일	73.83 110.57	49.76% 5.73%
채권형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미국 중기 회사채	• 5년~10년 만기의 투자등급 회사채로 구성된 중기 회사채 ETF •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임박. 연내 금리인하 폭에 대한 고민이 채권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하나, 연착륙 기대 동반되며 회사채 스프레드 지지 전망	2024년 8월 30일	82.74 84.54	2.18% -23.99%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GSCI Index 적용

미국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리뷰(2/9~2/20): 오픈클로발 AI의 산업 대체 우려 확대 속 발전, 운송 등 수혜 기대감 부각

- 리뷰 코멘트: 신고가 개수 488개 기록하고 S&P 500 -0.33% 약보합 마감. AI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대체 가능 우려에 IT 업종 부진한 반면 전력 발전 중심의 산업재, 유틸리티 등 신고가 주도
- 전망 코멘트: 오는 2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수혜 기대되는 하드웨어 중심의 IT 업종 및 전력 발전 중심의 산업재 업종 주목 요망

미국 신고가/특징주 리뷰

Kinder Morgan (KMI.US)	• 천연가스 인프라 수요 슈퍼사이클 영향에 관련주 신고가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LNG 수출 확대로 구조적 성장 기대감 • 2025년 말 프로젝트 백로그 100억 달러로 60%가 발전 부문
CSX Corp (CSX.US)	• AI 수혜 업종에 철도, 운송 등 주목받으며 CSX, Union Pacific, Norfolk Southern 등 신고가 • AI 기반 운송 최적화로 연료 효율 5~8% 향상, 운행 시간 10% 단축 등 비용 최적화 기대 • CSX는 Trip Optimizer AI 시스템으로 연료 효율 6% 개선하고 화물 도착 시간 예측 정확도 95% 달성
Ciena (CIEN.US)	• S&P 500 신규 편입 이후 매수세 유입 및 AI 시대 광통신 수요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 • AI 네트워킹 수요 급증으로 FY2026 매출 가이던스 24% 성장으로 상향하고 backlog 50억 달러 확보
Deere & Company (DE.US)	• 트랙터 규제 완화, 고에탄올 E15 가솔린 블렌드 거래 추진 및 호실적 발표에 신고가 • E15 정책은 옥수수 수요 증가로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 주며 장비 수요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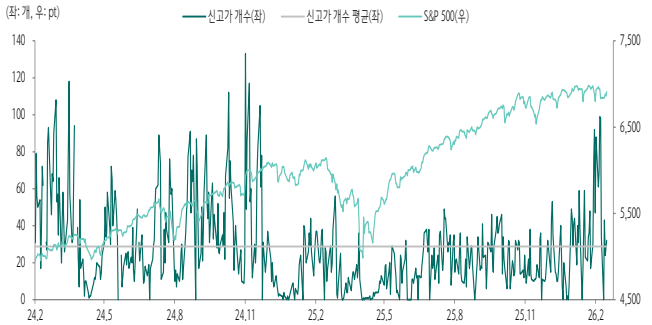
미국 주요 섹터 리뷰

산업재	• FedEx, Union Pacific, CSX, Deer & Co, Caterpillar, Dover, GE Vernova, Lockheed Martin 등 신고가 • AI 활용 통해 운용 효율화 기대감 있는 운송/철도 신고가 • AI발 견조한 전력 발전 수요 전망에 발전주 신고가
에너지	• Targa Resources, Kinder Morgan, Baker Hughes 등 신고가 • 데이터센터 및 수출 확대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감 • 시추 활동 확대 기대감에 시추 관련주 상승

미국 신고가 기대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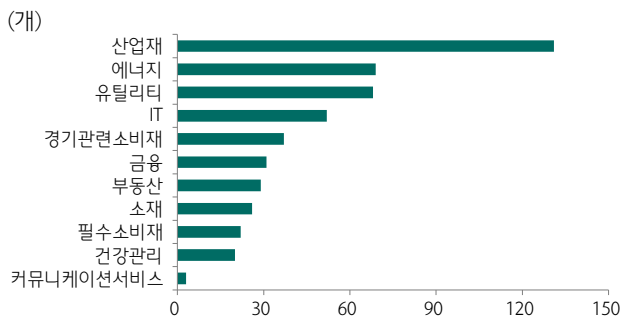
Valero Energy (VLO.US)	• 중질유 공급 늘어나 경질-중질 원유 가격 차이 벌어지면 원료 선택 유연성 높아지고 정제 마진 개선 • 향후 2~3년 내 베네수엘라 생산량 130만~140만 배럴로 늘어나면 추가적인 이익 예상
Alphabet (GOOGL.US)	• FY2026 CapEx 1,750억~1,850억 달러 전망으로 예상치 상회 • 구글 클라우드 백로그 2,4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61% 증가 • 제미나이 MAU 7억 5000만 명 이상, 현재 분당 100억 개 이상의 토큰 처리 중
Walmart (WMT.US)	• 스파키, 멤버십, 광고 등 디지털 사업 성장 기대감 유효 • 미국 인구 95%를 3시간 이내 배송 가능하게 하는 5,200여개의 매장 인프라 보유

AI 수익성 우려 확대에 등락 지속되며 약보합 마감



주: 연간 미국 증시, 신고가 개수 추이(2/9~2/20)
자료: CIQ, 하나증권

AI 수혜 기대되는 산업재, 에너지 업종 중심의 신고가



주: 연간 미국 증시, 신고가 개수 추이(2/9~2/20)
자료: CIQ, 하나증권

미국 52주 신고가: 신규 & 기존

신규 신고가 출몰	
General Electric (GE.US)	• 데이터센터 발전에 제트엔진 수요 확대 기대감에 상승 • GE, Howmet Aerospace, Woodward 등 항공 엔진 기업들도 육상용 항공파생 터빈 또는 부품 공급 • 전환하기 위한 주요 개조는 1) 제트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연료 노즐 교체, 2) 항공기용 대형 팬을 발전에 적합한 소형 팬으로 교체
Ralph Lauren (RL.US)	• 3QFY26 매출액 24.06억 달러(YoY +12.2%), GPM 69.9%(YoY +150bp), EPS 6.22 달러(YoY +24.9%)로 컨센서스 상회 • 홀리데이 시즌 동안 풀프라이스 판매율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각 지역에서 매출 품질과 총이익률 확대 영향 • FY2026 가이던스 매출 성장률 HSD~LDD(이전 가이던스 +5~+7%), 영업이익률 +100~140bp 전망
Halliburton (HAL.US)	• 미·이란 전면전 가능성 부각에 유가 상승하며 에너지 업종 주간 +2.42% 상승하며 신고가 • 지난 20일 기준 국제 유가 WTI 66.48 달러로 6개월 내 최고치 경신하며 시추 수요 확대 기대감 반영
기존 신고가 지속	
Deere & Company (DE.US)	• 트랙터 규제 완화, 고에탄올 E15 가솔린 블렌드 거래 추진 및 호실적 발표에 신고가 • E15 정책은 옥수수 수요 증가로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 주며 장비 수요 개선 전망
Ciena (CIEN.US)	• S&P 500 신규 편입 이후 매수세 유입 및 AI 시대 광통신 수요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 • AI 네트워킹 수요 급증으로 FY2026 매출 가이던스 24% 성장으로 상향하고 backlog 50억 달러 확보
Tapestry (TPR.US)	• 2QFY26 매출액 25억 달러(YoY +14%), OPM 28.8%, EPS 2.69 달러(YoY +34%)로 컨센서스 상회 • 코치 브랜드 매출액 21.4억 달러 기록. Z세대 고객 획득 가속화와 주요 제품의 판매가(AUR)와 판매량 성장 영향 • 강력한 신규 고객 유입 및 재구매율 높은 젊은 고객 증가로 판매량 성장으로 이어져

주요 신고가 주가 추이

	업종	시가총액 (조원)	52주 내 신고가 돌파일	돌파 이후 수익률 (%)	신고가 이후 최대 낙폭(%)	YTD (%)
S&P 500 지수	-	-	2025-06-27	+11.3	-16.7	-0.3
엔비디아 (NVDA.US)	IT	6,730	2025-06-25	+24.2	-28.1	+1.5
알파벳 (GOOGL.US)	커뮤니케이션	2,999	2025-08-22	+51.1	-19.2	-1.2
월마트 (WMT.US)	필수소비재	1,449	2025-10-14	+17.3	-17.0	+11.6
일라이 릴리 (LLY.US)	건강관리	1,443	2025-11-05	+14.3	-32.7	-2.0
JP모건 (JPM.US)	금융	1,160	2025-06-24	+5.9	-20.5	-8.5
엑손 모빌 (XOM.US)	에너지	908	2025-11-11	+25.9	-16.0	+50.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IT	685	2025-06-26	+234.3	-37.2	+22.1
팔란티어 (PLTR.US)	IT	451	2025-05-13	+2.0	-37.6	-22.2
골드만 삭스 (GS.US)	금융	386	2025-06-26	+32.7	-26.1	-2.4
GE 버노바 (GEV.US)	산업재	324	2025-05-20	+84.8	-20.9	+22.4
테피스트리 (TPR.US)	경기 관련 소비재	44	2025-07-07	+74.4	-29.9	+18.5
알버말 (ALB.US)	소재	30	2025-11-13	+54.9	-37.3	+23.3

자료: CIQ, 하나증권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 AI 산업 재편 우려 높아진 만큼 이익 성장 기대감 높은 기업 관심

- 글로벌 증시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지정학적 불안과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 속 AI발 산업 재편 우려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되며 하락 흐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효로 무역 관세 불확실성 지속되는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로 금융시장 주가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이번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에 주목. AI 산업 재편 우려 높아진 만큼 향후 이익 성장 기대감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유효. 투자유망종목은 기존 종목 그대로 유지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엔비디아	NVDA.US	미국	정보기술	6,730	1/6	188.12	191.61	1.86%	0.06%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2,999	1/6	316.54	311.49	-1.60%	-3.39%
일라이 릴리	LLY.US	미국	건강관리	1,443	1/6	1,041.51	1058.56	1.64%	-0.1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685	1/6	312.15	421.19	34.93%	33.14%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508	1/6	616.10	130.60	-11.61%	-11.87%
팔란티어	PLTR.US	미국	정보기술	451	2/3	147.76	756.47	22.78%	20.99%
RTX	RTX.US	미국	산업재	391	1/13	193.85	201.92	4.16%	3.37%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65	1/6	103.87	160.33	54.36%	52.56%
바이두	9888.HK	중국	자유소비재	67	1/6	145.90	129.70	-11.10%	-12.90%
둥방전기	600875.CH	중국	산업재	20	1/6	24.70	33.84	37.00%	35.21%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

엔비디아 (NVDA.US)

Graphics, Compute & Networking의 두 부문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6,730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64.84%
PER(2026E)	56.00
PBR(2026E)	39.1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570.0억 달러(YoY +62%), EPS 1.30 달러(YoY +60%)로 컨센서스 상회
  고사양 블랙웰 확장 원활하고, 올해 루빈 플랫폼 생산 일정도 차질 없어
  추론형 에이전트 AI 등장으로 필요 연산량 과거대비 100배, 1000배 이상 증가 예상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

알파벳 (GOOGL.US)

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시가총액(조원)	2,999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34.51%
PER(2026E)	25.20
PBR(2026E)	7.60

- Investment point
  3QFY25 매출액 1,023.5억 달러(YoY +16%), EPS 2.87 달러(YoY +35%)로 컨센서스 상회
  FY2025 CapEx 910억~930억 달러 전망(이전치 850억 달러) 전망
  AI 기반 검색으로 쿼리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광고 매출 가속화 기대
- Risk
  광고 시장 둔화 및 AI CapEx 감소로 AI 모멘텀 부진

일라이 릴리 (LLY.US)

대사질환, 종양, 면역 질환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종합제약사

국가	미국
업종	건강관리
시가총액(조원)	1,443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21.02%
PER(2026E)	65.70
PBR(2026E)	45.20

- Investment point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 중으로 소비자 시장에서 마운자로 시장 점유율 확대 중
  자사 젭바운드 보험 적용 문제로 CVS 약품 혜택 프로그램 탈퇴
  트럼프 행정부와 GLP-1 거래 가격 발표로 3년 간 일라이 릴리 관세 면제 결정
- Risk
  비만치료제 성장 둔화로 실적 모멘텀 약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685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5E)	-
PER(2025E)	76.60
PBR(2025E)	2.3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13.2억 달러(YoY +46%), Non-GAAP EPS 3.03 달러(YoY +157%) 기록
  HBM 수요 유지되는 가운데, 타이트한 일반 DRAM 공급으로 전방위적 가격 인상 진행
  eSSD 중심의 NAND 개선세 확인되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확대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캐터필러 (CAT.US)

건설 및 광산 장비, 오프로드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등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508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9.51%
PER(2026E)	18.0
PBR(2026E)	9.6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91억 달러(YoY +18.0%), EPS 5.16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각국 인프라 투자 지속, 신흥국 광산 수요 등 향후 업황 전망 긍정적
  데이터센터 프라임 파워: 하이퍼스케일러, 콜로케이션 업체 수요 견조. Titan 350 터빈 주문 호조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팔란티어 (PLTR.US)

데이터 분석 및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온톨로리 기술 보유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451
편입일	2월 3일
EPS증감율(2026E)	+16.04%
PER(2026E)	234.54
PBR(2026E)	47.74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4.07억 달러(YoY +70%), EPS 0.25 달러(YoY +79.0%) Rule of 40: 127%
  1QFY26 가이던스 매출액 15.34억 달러(YoY +73.6%), 영업이익률 56.8%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
  Rule of 40 지표 상승은 팔란티어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

- Risk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RTX (RTX.US)

Raytheon, United Techonologies의 항공기 사업이 합쳐져 만들어진 방산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391
편입일	1월 13일
EPS증감율(2026E)	+38.64%
PER(2026E)	17.50
PBR(2026E)	1.80

- Investment point

  트럼프, 미국 국방예산 1조 5천억 달러 실현 언급하며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비 대폭 인상 전망
  미 국방부의 다년간 군수물자 보충 사이클, NATO 재무장에 따른 유럽 방산 주문 증가 수혜
  EU 방산 조달의 80%가 비EU 기업으로부터 공급되고 RTX는 미사일, 레이더 플랫폼 공급

- Risk

  미국 국방예산 감산 결정 및 EU 방위비 증액 중단

블룸 에너지 (BE.US)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65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
PBR(2026E)	11.40

- Investment point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27%를 SOFC가 충족할 것이라는 기대감 유효
  대만 콴타컴퓨터 자회사인 QMN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수주 발주
  비용, 전력 손실 측면에서 블룸에너지의 800V DC 전력 솔루션 성능 우수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바이두(9888.HK)

AI 칩 자회사 별도 상장, 반도체 국산화 기대감 유효

국가	중국
업종	자유소비재
시가총액(조원)	67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2.60%
PER(2026E)	14.10
PBR(2026E)	0.90

- Investment point

  AI 칩 자회사 Kunlunxin 홍콩거래소 분할상장 추진은 반도체 내재화 역량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
  자금 조달 채널 확충과 기업가치 독립 부각을 통해 AI 기반 사업 전반의 리레이팅을 유도
  반도체 매출(AI 클라우드 인프라) '26년 2배 증가 전망,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기대

- Risk

  경쟁 심화, 미중 갈등

동방전기(600875.CH)

중국 원전 설비 점유율 1위, SMR/핵융합 기술 선도적 입지 확보

국가	중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20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25.0%
PER(2026E)	17.0
PBR(2026E)	1.80

- Investment point

  중국의 3대 전력 설비 제조사 중 하나로 원자력/수력/석탄 발전을 포함한 종합 전력 설비 기술력 확보
  원전 설비 점유율 40%로 SMR/핵융합 연구개발 진전과 상용화에 따른 주가 모멘텀도 기대
  초대형 수력 프로젝트 착공에 따른 대규모 수주 기대감 유효

- Risk

  프로젝트 및 실적 인식 지연, 정책 변화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2.2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무역 및 건설 지표로 보는 미국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형: 인공지능 인프라(IT 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지속

-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촉발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미국 AI 인프라 확장 사업은 초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MSFT, GOOGL, ORCL, META, AMZN 등)의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연초 5,578억 달러에서 6,782억 달러로 21.6% 상향됐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의 대부분을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는 서버, 40%는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킹에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자본지출의 2/3을 단기 자산(IT 장비)에 집행했다고 한다.
- 미국의 수출입 지표와 건설지표도 데이터센터 및 IT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지한다. 1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703억 달러다. 전년 대비 상품 수입은 7월을 제외하고 6월부터 매월 감소했지만, 수입 항목 중 자본재는 연초부터 매월 증가했다. 9월을 제외하고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타났다. 세부 품목 중 매월 전년보다 많이 수입한 제품은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주변기기), 발전기, 통신장비 등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제품들이다. 내부 생산이 제한적인 미국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 높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YoY)도 하드웨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준다.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연초부터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고, 10월부턴 세 자릿수 YoY 성장률을 보였다. 수입 품목 중 컴퓨터도 10월부터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률이 나타난다. 엔비디아와 AMD 등의 고성능 반도체(가속기 등)는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된 후 폭스콘, 콴타, 위스트론 등 대만이나 멕시코에 위치한 ODM 업체로 보내져 서버로 만들어진다. 완성된 제품은 서버 랙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자본재 수출도 매월 증가했다. 자본재 중 연초부터 매달 전년 대비 수출이 확대된 품목은 민항기, 민항기 엔진,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등이다. 통신장비도 8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보다 수출이 늘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의 베이스 캠프이자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7월 AI Full Stack Package를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의 AI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도 미국의 AI 인프라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바통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건설 지표도 장기자산(건물 등)보단 단기자산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민간 건설 연구기관인 Dodge Construction Networks*의 1월 건설 계획(Dodge Momentum Index)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상업용 건설 계획은 YoY +26%, 기관 건설 계획은 YoY +34%다.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지수가 6.4% 감소했는데, 지수를 견인하던 상업 부문이 12월보다 7.1% 둔화됐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로는 위축됐으나, 여전히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은 양호하다. 전년 대비 상업용 건설 계획은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17% 증가한 수준이다.
- 건설 계획과 달리 건설 착공 지수(Dodge Construction Starts)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1월 건설 착공 지수는 1조 2,420억 달러(YoY +9.7%)다. 세부 항목의 수치는 비주거용 건설 착공 3,780억 달러(YoY -3.7%), 주거용 건설 착공 3,450억 달러(YoY -14.9%), 인프라 및 토목(Non-Building) 5,220억 달러(YoY +56.3%) 등이다. 건설 착공 지수를 견인하던 하나의 축인 비주거용 건설 착공이 부진했다. 꾸준히 확장하고 있던 데이터센터 건설이 쉬었기 때문이다(MoM -52.2%). 1월 착공된 주요 대형 비주거용 건물 프로젝트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요크의 QTS CLT1 데이터센터(1단계, 7억 1,400만 달러), 뉴욕주의 장로교 암센터(12억 달러), 애리조나주의 엠코(Amkor) 첨단 패키징 공장(1단계, 10억 달러) 등이 있다.

- 건설 착공 지수는 소수의 프로젝트가 견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데이터센터 투자 초기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투자 초기 비용이 가장 크며, IT 장비에 전체 초기 투입 비용 중 72.9%가 들어간다. 미국 및 중국 정도를 제외하곤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첨단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진한 주가로 단기적 투자심리 위축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털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하드웨어 기업들의 변동성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민간 조사업체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도 2014년부터 건설 지출(Construction Spending) 데이터 중 데이터센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9월 셧다운 이후 일부 데이터가 불안정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

산업 Issue

2026년 2월 22일 | 글로벌 리서치

미국 에너지

원자력 업데이트 #1: 우라늄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3.6%까지 급감

미국은 2022년 바이든 정부부터 당시 미국에 농축우라늄 20%를 공급했던 러시아 Rosatom에 대한 제재를 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상한선을 정해 러시아산 우라늄은 미국 내 수요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상업용 농축 시설은 영국·네덜란드·독일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는 Urenco가 유일하다. NRC는 2025년 9월 Urenco의 농축 한도를 기존 5.5%에서 10%로 상향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U3O8 수입의 러시아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3.6%까지 급감했다. 반면 캐나다로터의 수입량은 70% 증가하며 (비중은 22.4%에서 33.3%로 증가)하며 5년새 증가한 우라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업스트림보다는 미드스트림 재건에 집중된 지원책

정부는 자국 내 우라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들어 크게 두가지 지원책을 공개했다. 1월초 공개된 에너지부의 지원책은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 General Matter, Orano Federal Services 각 기업이 농축 우라늄 캐파를 확장하는데 9억달러씩 총 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와 SMR의 필수 연료인 HALEU의 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외에도 와이오밍 주는 BWXT의 TRISO 연료 공장에주정부 자금 1억 달러 지원책을 공개했다. 다만 지원책은 업스트림보다는 미드스트림 재건에 집중되고 있어 실물 자급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30 타임라인, 대형원전의 재가동 수요를 고려할 때 가장 빠른 수혜 전망

우라늄 현물 가격은 1월 말 기준 94.28 달러/lbs로 2024년 1월 100.25 달러/lbs 이후 2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WNA(세계 원자력 협회)는 우라늄 수요가 2030년까지 86,000톤, 2040년까지 150,000톤으로 증가하지만 기존 광산 생산량 증가 여력은 수요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1위의 우라늄 생산기업인 **카자토프롬**은 최근 남부 Budenovskoye ISR 광산 램프업으로 2026년 생산량 가이던스를 2025년 대비 9% 증가한 71~75M lbs로 제시했다. 지난 8월 하향 조정 이후 재조정이다. **카메코**는 2026년 연간 생산 가이던스로 2025년(21.0M lbs)과 유사한 수준인 19.5~21.5M lbs를 제시했다. **센트러스에너지**는 2029년 첫 상업용 생산 Cascade를 가동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의 SMR 타임라인과 대형원전의 재가동 수요를 고려할 때 우라늄은 원자력 밸류체인 내 가장 빠른 수혜를 전망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두언	수석연구위원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oun
	전규연	연구위원	경제/원자재	8196	kych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김근아	선임연구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강윤형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이철현	선임연구원	Quant RA	7723	lch2678
	김성은	선임연구원	중국/신흥국전략 RA	7520	seongeunk
	박준우	선임연구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박성제	선임연구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8576	parksungjae
	안범수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3224	beomsooahn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승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안기량	연구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gan
	송종원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